



처용 무당설 및 아랍인설의 해석학적 오류 처용설화의 철학적 연구 (1)

Der hermeneutische Fehler in der Cheoyong-Schaman-Lehre und der Cheoyong-Araber-Lehre Eine philosophische Untersuchung der Cheoyong-Mythologie (1)

저자 (Authors)	김진 Jin Kim
출처 (Source)	철학연구 83 , 2008.12, 1-19(19 pa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83 , 2008.12, 1-19(19 pages)
발행처 (Publisher)	철학연구회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23392
APA Style	김진 (2008). 처용 무당설 및 아랍인설의 해석학적 오류 처용설화의 철학적 연구 (1). 철학연구, 83, 1-1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4 10: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처용 무당설 및 아랍인설의 해석학적 오류 처용설화의 철학적 연구 (1)

김진

【주제분류】 신화학의 철학, 문학철학

【주요어】 처용, 무당설, 아랍인설, 전복적 해석학

【요약문】 이 논문은 문학, 민속학, 역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용설화의 해석 방식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시도한다. 처용 연구에서 주류적인 시각은 국문학과 민속학자들이 주도하는 처용 무당설과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문명교류학자가 주도하는 처용 아랍인설이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해석체계는 처용 텍스트의 기술체계나 내재적 의미 함축 등을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텍스트 내부의 주요 개념들을 배제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처용 무당설은 고려 시대에 일반화된 무속적 역사진경의 원리에 의하여 신라말기에 일어난 처용 사건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처용 사건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용 아랍인설 역시 실크로드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슬람과 신라의 내왕에 대한 기초적인 전제만으로 처용을 아랍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처용 무당설과 아랍인설로 설명되지 않은 신화소들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처용설화는 전복적 해석학을 통하여 역사적 상황과 텍스트 내재적 의미를 동시에 얻게 된다.

1. 문제제기

이 논문에서는 국문학, 민속학, 역사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처용설화의 해석 방식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시도함으로써 처용 텍스트에 대한 의미 비판적, 해석학적 접근을 통하여 처용 사건의 본래적인 모습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처용설화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수한 학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모든 주장과 가설들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당설’이나 ‘아랍인설’과 같은 처용설화의 주류적인 해석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그들이 간과하거나 무시하였던 소재들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전복적 해석의 토대를 모색한다.¹⁾

‘전복적 해석학’(subversive Hermeneutik)은 에른스트 블로흐가 기독교를 무신론이나 페르시아 이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기독교의 교의체계 안에서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의미 있게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론이다.²⁾ 처용 무당설은 주로 국문학자와 민속학자들이 지지해왔으나, 고려처용가의 무속적 연구 경향성을 신라 시대의 처용사건에까지 무비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후대적 관점으로 선대의 사건을 특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처용 아랍인설은 이용범, 정수일 등이 제안하였으며 문명교류학이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처용 사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나 처용 텍스트의 의미함축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해석방식들이 간과하고 있는 신화적 요소들을 열거한 후에 그것들까지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처용 관련 사건이 역사적으로 무속신앙의 형태로 전승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단정한다면 처용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 등을 비롯한 해석학적 상황을 배제하는 방법론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것은 처용 사건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화인류학적 요소들을 무시함으로써 원초적인 사건 자체를 재구성할 수 없도록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처용 무당설 이외에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학설은 처용 아랍인설이다. 당시 신라가 실크로드의 마지막 기항지였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시대의 문화 수요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처용 아랍인설 역시 처용 무당설과 유사한 방법론적 실책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처용 무당설과 처용 아랍인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합리적인 처용설화 해석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처용 무당설의 문헌적 전거

처용 무당설은 처용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국문

- 1) 처용설화의 전복적 해석은 필자의 『처용설화의 해석학』(울산대학교출판부 2007)과 『처용 논쟁』(울산대학교출판부 2008)에서 시도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면서 두 책에서 논의되지 못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 2) Bloch, Ernst: *Das Prinzip Hoffnung*. Suhrkamp, Frankfurt 1959; *Atheismus im Christentum*. Suhrkamp, Frankfurt 1968, S. 22, 24, 345. Raulet, Gérard: *Subversive Hermeneutik des »Atheismus im Christentum«*, in: Burghart Schmidt, *Seminar: Zur Philosophie Ernst Blochs*, Frankfurt 1983, S. 50f. 김진, 『에른스트 블로흐와 희망의 원리』, 울산대학교출판부 2006, 23, 25, 136, 140.

학자와 민속학자들이다.³⁾ 무속신앙적, 민속학적 처용 해석은 처용의 부인과 역신의 성애적 묘사를 질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기에서는 처용 부인을 병들게 한 역신을 물리쳐서 낮게 했다는 사실, 즉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요소가 중심 주제가 된다. 이 이론은 관용 개념과 결합되어 해석상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처용 부인과 역신의 성애적 묘사를 질병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벽사가 부각되고 관용의 의미는 배제되지만, 관용의 의미를 강조할 경우에는 처용 부인과 역신의 성애적 묘사가 실제 사실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용 무당설을 정당화하고 있는 전거는 무엇일까?

첫째로 일연 스님 자신의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처용을 벽사진경의 주인공으로 기술하였다. 처용의 형상을 보면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는 역신의 약속은 문첩(門帖) 신앙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로써 신라인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사악함을 피하고 경사스런 일을 맞이하려고 했다(辟邪進慶)는 것이다.

둘째로, 처용설화를 무속적으로 특정하는 결정적인 전거는 바로 고려 처용가이다. 고려 처용가가 전형적인 무가(巫歌)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정운채에 의하면 벽사진경적 요소는 고려 처용가에서 절대화되었으며, 처용은 이제 “모두가 떠받들어야 할 숭고한 신격(神格)”⁴⁾으로 숭상되기에 이르렀다. 처용은 무속신앙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침(李詹 1345-1405)의 시 “월명향”(月明巷)에서 처용은 신(神) 또는 신인(神人)으로 불리고 있다.⁵⁾

셋째로, 고려 및 조선의 왕실에서 처용가와 처용무 등이 궁중나례로까지 정립된 것은 굿놀이, 즉 구나(驅難)를 통하여 역신을 퇴출하기 위한 벽사진경적, 무속신앙적 기능 때문이었다.⁶⁾ 조선 태종 14년(1414) 12월 30일에 구나가 행해진 바 있다.⁷⁾

3) 처용 무당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능화, 양주동, 김동욱, 김승찬, 장수근, 김열규, 현용준, 서정범, 김상억, 윤영옥, 김갑기, 홍경표, 정상근, 박노준, 岡山善一郎, 박준규, 박진태, 김학성, 서대석, 이도흙, 최우수, 신은경, 양희철, 정운채, 임재해, 이완형, 김영수, 이유수 등이다.

4) 정운채, 「고려<처용가>의 <처용랑망해사>조 재해석과 벽사진경의 원리」, 『처용연구전집』 II, 문학2, 역락 2005, 568쪽.

5)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 古跡 月明巷, 『東京雜記』新羅 古跡 月明巷. 김유미, 「처용전승의 전개양상과 의미연구」, 『처용연구전집』 II, 문학1, 역락 2005, 686쪽.

6) 박노준,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II, 문학1, 역락 2005, 244쪽.

7) 『조선왕조실록』, 태종 28권, 14년(1414) 12월 30일 기해 3번째 기사 참조. 그러나 중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처용은 무당으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무속신앙의 형태로 전승되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용설화는 유포 당시부터 처용의 신격화와 무속적 카리스마를 의도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처용 전승은 태생적으로 무속신앙의 외피를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민속학적 처용 이해의 방법론적 오류

처용설화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무가(巫歌)인 고려 처용가를 바탕으로 신라 처용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⁸⁾ 『악학궤범』에 수록된 고려 처용가가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처용가를 혼독하였으며, 고려 처용가의 무속적 의미를 신라 처용가의 텍스트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민속학적 해석의 키워드는 바로 벽사진경(僻邪進慶)이었다. 그 때문에 처용이 무당이고, 처용가는 무가라는 일반적인 도식이 정형화되었으며, 그와 같은 주류적 해석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까지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⁹⁾ 이들은 처용의 부인과 역신(疫神)의 통간(通姦) 사실에 대한 처용의 태도가 관용적이어서 악귀를 축출했다고 해석한다. 그것은 일연이 『삼국유사』 텍스트에서도 밝히고 있는 관점이다. 그러나 일연이 기술한 벽사진경의 관점은 처용사건이 신화화된 이후의 해석적 결과이며, 따라서 처용부인과 역신의 성애적 기술이 무속적으로 변형되기 이전의 원형적인 모습을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처용이 무당이라는 민속학적 해석 방법론은 어떤 점에서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종 1년(1506) 12월 26일에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행하던 처용나례를 중지시켰으며(『조선왕조실록』, 중종 1권, 1년(1506) 12월 26일 경오 3번째 기사), 중종 10년(1515) 12월 22일에 다시 정월 초하루에 처용무를 추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다(『조선왕조실록』, 중종 23권, 10년(1515) 12월 22일 갑술 1번째 기사).

- 8) 이에 대하여 이우성은 “일반적으로 처용설화의 해석에 고려이후의 처용가·처용무를 끌어다가 혼합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방법적으로 큰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분석」(1969), 『처용연구전집』 IV, 역락 2005, 661쪽. 다만 이우성은 처용의 벽사진경 신화화가 고려조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필자와 의견을 달리 한다. 처용의 신화화 작업은 신라 하대에 정권 창출을 기도한 세력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9) 박경신, 김성수, 이용수, 안학서, 『고등학교 문학』 하권, 금성출판사 2002, 78쪽.

첫째로 신라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에서 자신의 부인과 역신이 통간하는 장면에 대한 처용의 태도가 판이하게 다른 점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려 처용가에서는 처용이 역신의 통간 행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로 역신의 존재는 헛감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으며, 처용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악귀를 퇴치한다. 그러나 처용가에서 처용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삼국유사』 제2권 「처용랑 망해사」조에 수록된 처용가의 마지막 귀절은 “아자날 엇디하릿고”(奪叱乙何如爲理古)이다. 이는 처용이 자신의 부인을 역신에게 빼앗긴 후 탄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¹⁰⁾ 고려 처용가에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처용이, 왜 신라 처용가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두 처용가가 동일한 사실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라 처용가에서 처용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당시의 성 풍속도와 연관지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처용에게 왕이 내려준 여인은 왕실의 색공(色供)이었으며, 처용부인을 범한 역신은 왕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 실세였을 것이다.

둘째로 민속학적 해석의 방법론적 결함은 특별한 설명 없이 처용 텍스트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된 성 행위 장면을 알레고리로 처리하고,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된 ‘동해 용왕의 조화’와 ‘역신의 약속’은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즉 구체성과 추상성을 역전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박경신의 문학 교과서 역시 처용 부인과 역신 사이의 성애적 묘사는 치정관계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처용을 무당으로 보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절대 다수가 성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치정관계로 해석하였다.¹¹⁾ 뿐만 아니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도 성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묘사들이 관찰되므로 처용

10) 민속학적, 무속적 해석의 경우에도 학자들은 처용의 태도를 ‘체념과 단념’(김열규, 박춘규) 또는 ‘진노와 경고’(이기문, 박인희) 등으로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박춘규는 “초인간적 불가항력에 대항할 수 없는 체념적 심리상태”로 규정했으며(「處容歌의 巫覡性 考察」, 『처용연구전집』 III,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2005, 489쪽), 김열규는 체념(諦念)과 단념(斷念)으로(「處容傳乘試攷」(『처용연구전집』 IV,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2005, 179쪽) 해석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기문은 이 문장을 “빼앗음을 어찌 敢行하는고”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처용이 가무로 역신을 물리친 것으로 보았으나(이기문, 『국어사개설』, 65쪽 이하), 이우성은 이기문의 해석이 오독이라고 비판하였다(「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처용연구전집』 IV,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2005, 658쪽 참조).

11) 김진, 「처용설화의 해석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64쪽 참조.

부인과 역신 사이의 성애적 묘사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¹²⁾ 신라왕실에는 왕이나 왕족을 모시는 색공이 있었으며,¹³⁾ 골품제를 바탕으로 하여 근친혼이 성행하여 왕비가 친족 이외의 남성들에게 눈을 돌리는 일이 잦았다.¹⁴⁾ 따라서 처용부인과 역신의 사통 장면을 알레고리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¹⁵⁾

-
- 12) 『三國遺事』지철로 왕편에는 왕의 음경이 한 자 다섯 치나 된다는 기록이 있으며, 『三國遺事』文虎王 法敏 조에는 왕의 서제 차득공이 밀명을 받아 잠행할 때 武珍州의 州吏 安吉로부터 처첩을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이객관대(異客款待)의 기사가 있다. 그리고 소지왕(炤知王)이 날이군(捺已郡: 榮州)을 순유할 때 파로(波路)라는 사람이 16세의 국색(國色)이었던 딸 벽화(碧花)를 왕에게 바쳐서 아들을 낳게 한 사건도 있다(『三國史記』新羅本紀 권3, 炤知麻立干本紀 22년 추9월조). 또한 『三國遺事』의 도화녀·비행랑 조에는 진지왕의 혼령이 도화녀를 잉태시켜서 비행랑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三國史記』에는 현강왕이 동쪽 지방을 순행할 때 미인을 약취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신라왕실의 성 풍속이 역사서에 생생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처용가의 성애 묘사를 실제 사실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13) 색공의 전형은 벽화부인과 미실을 들 수 있다. 벽화부인은 비처왕의 두 번째 왕비로서 법흥왕과 비랑의 색공지신이 되었다. 또한 제6세 풍월주 세종의 부인이었던 미실은 세종, 사다함, 진흥왕(24대)과 그의 두 아들인 동륜태자와 금륜왕자(25대 진지왕), 진평왕(동륜태자의 아들로써 신라 26대 왕), 설원랑, 미생(미실의 남동생)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왕권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도 영실, 박이사부, 이화랑과 통정하였으며, 이화랑에게서 낳은 딸 만호를 그녀의 손자인 진평(동륜의 아들)과 혼인시키고, 자신의 딸 숙명을 아들 진흥왕과 혼인시켰다(김대문, 『화랑세기』, 박창화 필사본,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2005; 김진, 『처용설화의 해석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71-89쪽 참조).
- 14) 신라 제8대 아달라왕의 왕비 내례부인 박씨(제6대 지마이사금의 딸)는 석이매와 사통하여 아들(제10대 내해이사금)을 낳았으며, 제21대 소지마립간(비처왕)의 왕비 선혜부인은 묘심이라는 승려와 사통하였다. 정숙하기로 이름을 떨쳤던 도화녀는 진지왕에게서 비행랑을 낳았다.(김진, 『처용설화의 해석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72, 73, 75, 83쪽 참조). 또한 진흥왕의 왕비 숙명궁주(진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가 박이사부에게서 낳은 딸) 역시 이화랑과 사통하여 보리대사를 낳았다(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450쪽).
- 15) “1975년 미추왕릉지구 발굴지대에서 토기 조각들이 발굴되었다. 그 중에 국보 195호 장경호(長頸壺)가 있었다. 진흙으로 빚어진 장경호 항아리의 목 부분에는 손가락 크기 정도의 작은 진흙 조각상들이 붙어 있었으며, 체위의 형태가 다양한 성교(性交) 토우(土偶)들이 있었다. 그 토우들에서 우리는 신라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개방적인 표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토우들은 5세기 경의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4세기 때

셋째로, 무속적 민속학적 해석은 저자인 일연스님의 편집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 흔히 설화의 서술 내용(Narrative)은 역사적 근거(Evidence)에 신화화를 통한 허구적 상징적 요소(a)가 가미되어서 이루어진다.¹⁶⁾ 김학성은 “삼국유사의 기이(紀異)편의 ‘처용랑 망해사’조에 의사역사기록물(擬似歷史記錄物)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 우선 그 텍스트의 특수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종래 논의의 결정적인 결함은 바로 이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인된 바가 대부분이다.”¹⁷⁾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처용설화의 역사소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처용설화의 민속학적 해석은 이 같은 역사적 해석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¹⁸⁾ 처용설화를 순수한 역사기록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순수한 설화로만 보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따라서 해석학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이’(紀異)편은 건국, 왕권과 관련된 글을 모은 것으로서 ‘왕력’편과 더불어 역사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¹⁹⁾ 처용설화가 단순히 귀신과 용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제6권 신주(神呪)편에 수록했을 것이고, 단순히 망해사의 연기설화

부터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신라인들이 성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김진, 『처용설화의 해석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71-72쪽). 처용설화의 성애적 묘사가 4세기 혹은 5세기 전의 성교 토우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 16) 김학성, 「처용전승의 설화 중심 문학적 연구사」, 『처용연구전집』 III, 문학편, 역락, 서울 2005.
- 17) 김학성, 「처용설화의 서술구조와 처용가의 성격」, 『처용연구전집』 II, 문학 1, 2005, 353쪽.
- 18) 그러나 김학성은 2007년 12월 3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처용 심포지엄에서 “설화는 설화로서만 이해해야 한다.” 고 물려섰다. 필자는 그가 처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민중’, ‘화랑’, ‘용신의 대리자’ 등으로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학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진, 「김학성교수에 대한 반론」, 『처용논쟁』, 울산대학교출판부 2008, 125-130쪽). 김경수 역시 1997년의 논문 「처용랑 망해사」 설화의 구조와 그 해석」에서 역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처용을 ‘도래자’, 역신을 ‘중양집권 세력의 불량배’라고 규정하였으나, 2007년 12월 3일 울산에서 열린 처용 심포지엄과 2008년 9월 24일 KBS2의 생방송 시사 투나잇에서 “처용설화는 하나의 설화이기 때문에 특정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는 취지를 밝혔다. 김학성과 김경수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주장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특별한 설명 없이 모두 부정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부적절하게 처신한다.
- 19) 이기백, 「三國遺事 紀異篇의 고찰」, 『신라문화』 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8-25쪽.

었다면 제4권 탑상(塔像)편에 수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용설화를 단순히 벽사진경의 무속신앙으로 이해하게 되면 동해용왕(東海龍王), 신방사(新房寺), 급간(級干), 남산신(南山神), 북악신(北岳神), 지신(地神), 탐락자심(耽樂滋甚), 국종망(國終亡) 등의 코드는 해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적 잔존물을 배제할 경우 텍스트가 의미 있게 해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²⁰⁾ 따라서 우리는 무속적, 민속학적 해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해석학적 잔존물까지도 적절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설명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속적, 민속학적 이해라는 기존의 해석 방식을 뒤집어엎는 이른바 전복적 해석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처용설화의 신화적 요소들을 ‘비신화학’ 혹은 ‘탈신화학’ 함으로써 그 역사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¹⁾

4. 처용 아랍인설의 역사적 전거

처용 무당설에 버금가는 이론은 처용 아랍인설 또는 도래인설이다. 이는 처용이 바다에서 올라왔으며, 그 모습이 기괴하다는 설화에 근거하고 있다. 처용 아랍인설은 1969년에 이용범이 발표한 이후 정수일, 김경수, 허혜정 등이 가세하고 있다.²²⁾

-
- 20) 홍기삼은 “민속학적 연구자들의 경우 민속적 요소(좁은 뜻에서 무속적 의미 체계)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민속적 사건들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라 하여 묵살해 버리는 태도를 취하는 사례들을 보아왔다.” 라고 말함으로써 민속학적 연구의 방법론적 결함을 지적하였다. 홍기삼, 「처용랑 망해사」, 『처용연구전집』 II, 문학 2, 역락 2005, 539쪽.
- 21) Bultmann, R.: *Zum Problem der Entmythologisierung* (1963), in: Bultmann, Rudolf: *Neues Testament und christliche Existenz*. Tübingen 2002.
- 22) 1969년에 이용범이 「處容說話의 一考察」(『진단학보』, 32, 1969; 『처용연구전집』 IV, 역락 2005)에서 처용 도래인설을 주장한 이후, 정수일이 1989년과 1992년에 처용 아랍인설을 발표하였다.(『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역락 2005). 그는 이 주장을 『신라·서역교류사』(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고대문명교류사』(사계절출판사 2001), 『문명교류사연구』(사계절출판사 2002),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만남』(『인문과학』 85, 연세대학교 2003), 『한국속의 세계』(창작과비평사 2005) 등의 저술들에서 전개하였다. 문학 분야에서는 김경수가 「‘처용랑 망해사’ 설화의 구조와 그 해석」(『처용연구전집』 II, 문학 1, 역락 2005)에서 처용 도래인설을 주장하였으며, 허혜정 역시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산업』(글누림 2008)에서 처용 아랍인설을 지지하였다. 아랍과 신라의 내왕에 대한 김창석의 논문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

울산이 신라시대에 실크로드의 중요한 기항지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설이며, 일부 교과서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처용설화의 시대적 배경에 아랍인들이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용이 아랍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처용 아랍인설의 주요 논지와 그 한계를 점검하기로 하겠다.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와 그로부터 약 140년 후에 편찬된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처용이 ‘외지인’ 또는 ‘도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정적인 근거가 없다.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년)는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 조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설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다.²³⁾ 헌강왕 5년(879년) 3월에 왕이 나라의 동쪽지방의 군(郡)으로 순행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어전에 나타나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그 모양이 괴상하고 의관도 달랐으므로 사람들이 산해정령(山海精靈)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이 기사만으로 처용을 도래인이라고 규정하기는 불충분하다.²⁵⁾

그 이후 처용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었다. 고려말 이세현(李齊賢, 1287-1367)은 『익제난고』(益濟亂藁)에서 처용이 푸른 바다(碧海)에서 왔다고 하였으며, 조선 성종 때(1481) 전 50권으로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정포(鄭誦) 역시 동일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²⁶⁾ 또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지리지로 알려진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울산군(蔚山郡) 편이 나²⁷⁾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²⁸⁾에도 처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것으

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韓國古代史研究』, 44, 2006)도 참고할 만하다.

23)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憲康王 5年 春三月條.

24) 김부식은 『고기』(古記)에는 왕이 즉위한 해에 이들이 출현했다(小註: 古記謂王卽位元年事)고 함으로써 이를 실제 사건으로 다루었다.

25) 그러나 정수일은 이 기사를 근거로 하여 그 때 출현한 처용이 “초인간적인 神(龍子)이나 內人(內人)이 아니라 自然人(自然인)이며 外人(外來人)”이라고 주장하였다(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84쪽). 그들의 모양이 기이하고(形容可駭) 의관도 달랐으며(衣巾詭異), 사람들이 이들을 산해정령(山海精靈)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서 “이국적”(異國的)이고 “외래적”(外來的)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86쪽).

26) 李齊賢, 『益濟亂藁』 4, 小樂府, 張12, 益齋集: 新羅昔日處容翁 見說來從碧海中. 鄭誦, 『東國輿地勝覽』 卷22, 蔚山郡山川: 人言日處容翁 生長碧海中; 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86쪽 이하에서 재인용.

27)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蔚山郡: “군의 남쪽 37리 되는 곳에 개운포가 있고 그 가운데 한 바위가 있는데 처용암이라 한다. 신라 때 사람이 그 바위 위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기괴하여 당시 사람들은 처용옹이라 불렀다.”(郡之南三十七里 有浦曰開雲 中

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성종 때(1493) 편찬된 음악이론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는 처용의 얼굴이 ‘심목고비’(深目高鼻)하다고 적고 있다.²⁹⁾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처용은 당시 서역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이용범은 바다에서 갑자기 출현한 처용의 무리가 ‘산해정령’으로 불리게 된 것은 신라인들이 흔히 볼 수 없었던 인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처용 외래인설을 주장하였다.³⁰⁾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dhbah, 820-912)의 신라(Sila) 서술에 의하면, 아랍인들은 신라를 황금의 나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용범은 이런 사실들에 근거하여 처용이 울산에 상륙한 이방인, 특히 아라비아 상인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한다.³¹⁾ 이제현(李齊賢)의 『이제난고』(益齋亂藁)에서 처용이 ‘패치정순’(貝齒楨脣), 즉 ‘자개 이빨에 붉은 입술’을 가졌다고 한 것과 이색(李穡)의 『가정집』(稼停集)에서 처용을 ‘참화란홍’(簪花爛紅), 즉 “일찍 핀 꽃이 데일 정도로 붉다”고 한 것이나,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 처용을 ‘심목고비’(深目高鼻), 즉 ‘깊은 눈에 높은 코’를 가진 것으로 묘사한 사실들에 기대어,³²⁾ 그는 처용을 ‘이방인’ 또는 ‘아리안족’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용범의 학설에 근거하여 정수일(무함마드 간수) 역시 처용 아랍인설을 제기하

有一巖 曰處容巖 新羅時有人出其上 狀貌奇怪 時人謂之處容翁).

- 28)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蔚山郡條: “처용암은 읍내 남쪽 37리 되는 곳 개운포 가운데 있다.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신라 때 이 바위 위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생김이 기괴하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처용옹이라 불렀다. 지금도 향악에 처용희라는 것이 있다.” (處容巖在(蔚山)郡南三十七里開雲浦中 世傳新羅時有人出其上 狀貌奇怪 好歌舞 時人謂之處容翁 今鄉樂有處容戲).
- 29) 『樂學軌範』 卷5, 鶴蓮花臺處容舞 合設中處容歌 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88쪽에서 재인용. 또한 그는 당말(唐末)의 전역(錢易)이 쓴 책 『남부신서』(南部新書)에는 이상한 성씨를 가진 색목인(色目人), 즉 서역인이 등용된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 30) 이용범, 「處容說話의 一考察」, 『진단학보』, 32, 1969. (『처용연구전집』 IV, 역락 2005); 「處容說話의 一考察: 唐代 이슬람상인과 신라(발표와 토론)」, 『처용연구전집』 IV, 역락 2005. 그는 처용(處容)의 자의(字意)가 바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다. 처(處)는 ‘살 처’, ‘곳 처’, ‘정할 처’ 등이고 용(容)은 용납할 용, 용서할 용, 안존할 용, 얼굴 용, 모양 용 등이어서 ‘입주’(入住)가 허용(許容)된 사람’을 뜻한다.
- 31) 이용범, 「處容說話의 一考察」, 『처용연구전집』 IV, 608쪽. 「處容說話의 종합적 고찰: 역사학적 접근」, 『처용연구전집』 IV, 170쪽.
- 32) 이용범, 「處容說話의 一考察」, 『처용연구전집』 IV, 609쪽 이하.

였다. 이용범과 정수일의 처용 서역인설은 그 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처용의 다양한 얼굴에 하나의 얼굴을 더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고대 신라에 아랍의 상인이 교류했다는 문화사적 근거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254년경 프랑스 루이 9세가 원나라 현종 황제에게 파견한 루브루크(Willem Rubruck)가 그의 여행기에서 “섬의 나라 카우레”라고 기록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³³⁾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외국인은 1593년 12월 남해안 웅천항에 상륙한 스페인 선교사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또는 1653년 1월에 제주도에 표류해 온 네덜란드인 하멜 정도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보다 6,7백 년 전에 아랍의 무슬림들이 대거 신라에 진출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랍의 고서들에서 신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중세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dhbah, 820-912)의 『제도로(諸道路) 및 제삼국지(諸三國志)』에 의하면 8세기에서 13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 인도양을 거쳐 태평양 서안까지를 활동무대로 삼았던 압바스조 이슬람 제국은 신라로부터 검(銀粧刀), 명주(絹布), 도자기 등을 수입하였다. “중국의 맨끝 끝수의 맞은 편에는 많은 산과 왕들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라국이다. 이 나라에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들어가 그곳의 훌륭한 때문에 정착하고자 한다. 이 나라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³⁴⁾

신라와 이슬람의 교역 사실은 10세기 이후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이슬람제국의 전성기에 활동한 마스오우디(Al-masaudi, ?-965)는 선현들의 저서를 참조하여 30권에 달하는 세계역사전서 『황금초원과 보석광』을 저술하였는데, 그 첫 번째 책에서 신라를 언급하고 있다: “바다를 따라서 중국 다음에는 신라국과 그에 속한 도서(島嶼)를 제외하고는 알려졌거나 기술된 왕국이란 없다. 그곳에 간 이락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하고 또 자원이 풍부하고 보석이 일품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³⁵⁾

33) 정수일, 「동방의 이상향 신라」, 『한국 속의 세계』 상권, 창비 2005, 238쪽. 見塚茂樹, 『중국의 역사』, 이용범 역, 중앙신서 81, 중앙일보, 동양방송 1980, 239쪽. 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1989, 1992), 『처용연구전집』 IV, 역락 2005, 665쪽 참조.

34) 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66쪽 참조.

35) Al-masaud(Ab'l Hassan Ali Ibn'l Hossain), *Marwaju'l Zahab Wa Maadinu'l Jauhar*(『黄金草原과 寶石鏡』), 제1권, Al-Raja, p. 131; 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69쪽에서 재인용.

중세 아랍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al-Idrisī)의 저서 『천애횡단갈망자의 산책』(일명 『로제왕의 서』, 1154)에 수록된 세계지도에 신라가 그려져 있다.³⁶⁾ 그는 신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정착하여 다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이유는 그곳이 매우 풍부하고 이로온 것이 많은 데 있다. 그 가운데서도 금은 너무나 흔한바, 심지어 그곳 주민들은 개의 쇠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테도 금으로 만든다.”³⁷⁾

또한 디마쉬끼(Dimashiqi, ?-1327)라는 아랍 지리학자는 『大陸과 大洋의 驚異에 관한 現代的 精選』이라는 책에서 이슬람의 교조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제4대 칼리파(656-661)였던 알리(Ali)의 추종자들이 정적(政敵) 무아위파의 박해를 받아 신라까지 쫓겨 왔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집트의 문호 아프매둘 누와이리(Ahmadu'l Nuwayri, ?-1332)는 디마쉬끼의 저술에 근거하여 “중국 동쪽에 6개의 다른 섬들이 있는데 신라섬이라고 한다. 그곳 주민들은 우마위아인들을 피하여 그곳에 기거한 알라위인들이라고 한다. 신라섬에 들어간 외국인들은 비록 어려운 생활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공기 좋고 물 맑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³⁸⁾고 기술하였다.

다른 한 편 정수일은 경주 외동면 패릉(사적26호: 38대 원성왕릉?, 785년 정월에서 798년 12월까지 13년 11개월간 재위)의 무인석상이 아랍인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신라와 아랍의 교역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무인석상은 경주 도지동에 있는 제33대 성덕왕릉(702년 7월에서 737년 2월까지 34년 7개월간 재위)이나 경주 안강읍에 있는 제42대 흥덕왕릉(826년 10월에서 836년 12월까지 10년 2개월간 재위)에서도 발견된다.³⁹⁾ 그러나 무인석상 역시 처용이 아랍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신라인들 중에서 체형이 기이한 경우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아달라왕과 지증왕의 체구가 거대한 사실이나 헌강왕과 효공왕의 체구가 기이한 사실은 처용의 형상이 기이하다고 서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용을 서역인이라고 간주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⁴⁰⁾

36) 정수일, 「동방의 이상향 신라」, 『세계속의 한국』 상, 240쪽.

37) 같은 책, 같은 곳.

38) Ahmadu'l Nuwayri, *Nihayetu'l Arab Fi Funnu'l Adab*(『문학예술의 최종목적』), 제1권, p. 230; 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71쪽에서 재인용.

39) 정수일, 「무연의 증인 무인석」, 『한국속의 세계』 상, 228-236쪽.

5. 처용 아랍인설의 한계와 역사적 모호성

이용범과 정수일의 처용 아랍인설은 처용 사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민속학적 연구자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이용범은 김동욱, 김열규 등 민속학적 처용연구자들이 “처용이 출현하였다는 羅代의 시대적 배경을 전연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된 결합”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⁴¹⁾ 이용범과 정수일이 처용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참조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랍인들이 신라시대에 출몰하여 그 일부가 정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용이 도래인 혹은 아랍인이라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민속학적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랍인설에서도 처용 사건은 텍스트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되지 않고 있으며, 중세 아랍인들의 교역 사실이나 무인석상과 같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처용을 아랍인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처용 아랍인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신라에 아랍인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처용을 아랍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용범과 정수일의 논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신라에 로마와 기독교 문명의 전승 흔적까지 보고하고 있어서 자체모순적이다. 신라에 서역인이 들어 왔다면 아랍인뿐만 아니라 로마인과 유대인 또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수일은 4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로마문물이 신라에 유입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⁴²⁾

40) 이 글은 정수일의 『고대문명교류사』(사계절출판사 2001), 『문명교류사연구』(사계절출판사 2002), 『한국속의 세계』(창작과비평사 200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41) 이용범, 「處容說話의 一考察」(1969), 『처용연구전집』 IV. 2005, 571쪽.

42) 정수일, 「로마문화의 왕국 신라」, 『한국속의 세계』 상. 212-219쪽: 신라에서 발견된 로마문화의 흔적은 4-6세기경의 각종 유리제품, 미추왕 황금장식보검, 손잡이 달린 잔, 빨잔, 금제 허리띠 등이다. 경주 98호 고분 남분에서 출토된 새머리 모양 물병과 유리그릇들은 4세기 후반의 것이고, 경주 미추왕릉지구 고분에서 출토된 인물무늬 상감구슬은 5-6세기경의 작품인데, 여기에는 아리아인 계통의 서역인이 그려져 있다(정수일, 『동아시아의 유리보고 신라』, 『한국속의 세계』 상. 96-107쪽). 황금보검과 금동제 사리그릇에도 로마의 흔적이 서려 있다.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보물 635호 황금장식보검(길이 36cm, 5-6세기)이나 송림사 5층 전탑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그릇과 그 속의 유리잔과 유리병(7-8세기)은 서역에서 건너온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수일은 고대 신라에 기독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삼국유사』 신문왕 편의 고승 혜통에 대한 찬문에는 그가 “마귀와 외도(外道)를 모두 서울에서 멀리 했다”고 기술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도’는 당나라를 경유해서 유입된 경교(네스토리우스교)일 가능성이 있다. 혜통은 당 고종의 딸을 주술로 치유한 사실이 있는데, 고종은 바로 경교의 중국 부흥을 도왔던 황제이다. 이는 혜통이 중국에서 경교에 대한 지식을 접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경교의 중국 선교가 공식화된 것은 당태종 때(635년)이다. 원효문집에 예수가 법왕자(法王子)로 기술된 점이나, 781년에 중국 서안에 대진경교유행중국비(여기서는 예수가 미시가彌施訶로 표기되어 있다)가 건립된 사실 등은 기독교의 신라 유입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⁴³⁾ 경교가 중국에 들어온(635년) 후 약 100년 후에 불국사가 창설(751년)되었는데, 불국사의 경내에서 최근 철제십자무늬장식, 성모마리아 소상, 돌십자가상(그리스 양식)이 발견되었다. 이는 적어도 8세기 경에 기독교가 신라에 이미 유입된 사실을 확인해준다. 유입된 사실만으로 처용을 규정한다면 아랍인, 로마인, 기독교인 모두가 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정수일은 이용범의 학설에 따라서 처용(處容)의 ‘처’(處)는 ‘살 처’, ‘곳 처’, ‘정할 처’이고 ‘용’(容)은 ‘용납할 용’, ‘용서할 용’, ‘안존할 용’, ‘얼굴 용’이므로, 그 어의(語義)는 “입주가 허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⁴⁴⁾ 그러나 이 경우에 ‘처용’은 보통명사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외래인과 관련된 다른 문헌들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입주를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처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보고는 없다.

셋째로 처용 아랍인설을 서역인설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처용이 현강왕으로부터 급간(級干) 벼슬과 미인을 하사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뜻하지 않게 만난 외인에게 육두품과 진골 귀족에게만 내리는 급간 벼슬을 내렸다는 것은 골품제를 근간으로 하는 신라사회의 특성상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용에게 내려준 급간 벼슬은 신라 17관계(官階)에서 제9등에 해당되며, 이는 제6등 아찬(阿餐)에 이르기까지 육두품 출신과 진골만이 할 수 있는 벼슬이었다. 당대 신라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최치원(崔致遠)조차도 벼슬이 제6등 아찬에 그쳤는데, 그것은 육두품 출신이 할 수 있는 최고위직이었기 때문이다.⁴⁵⁾ 이처럼 신라의 최고지성들이나

43) 정수일, 「신라로 들어온 고대 동방기독교」, 『한국속의 세계』 하, 41-49쪽.

44) 간수, 무함마드,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327쪽. 이용범, 「한국사에 나타난 중동인은 어떠한가」, 『신동아』 1980. 12, 192쪽.

45) 이우성,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1969), 『처용연구전집』 IV, 역락 2005,

겨우 받을 수 있는 벼슬을 그 출생도 모르는 외지인에게 하사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함께 처용에게 왕이 미인을 내려주었다는 사실 역시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신라 왕실에는 전통적으로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하여 색공(色供)으로 불리는 미인들이 두고 있었다. 현강왕이 처용에게 미인을 하사했다면 필시 그의 색공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왕이 신뢰하는 측근인사들에게나 가능할 것이다.

넷째로 처용 아랍인설은 처용 텍스트가 신라왕조의 멸망과 관련된 거대서사로서 신라의 왕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신라왕실의 탐락자심과 국가의 마지막 멸망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처용 사건은 현강왕대에 발생한 여러 징조들 가운데 하나이며, 텍스트 전체의 분위기는 국가 멸망의 징후를 현강왕이 간과하여 백성들이 탐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처용은 신라 멸망의 와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이고, 나중에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역사의 중심세력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면서도, 역사의 전면에서는 완전하게 사라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처용이 신라왕실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면, 처용 아랍인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정황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처용설화에 대한 수백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처용의 정체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물론 역사적인 문헌이나 전거들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처용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국문학과 민속학, 그리고 문화교류학 종사자들이 처용 연구에서 자신들의 전공 영역에 한정해서 해석함으로써 일종의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성 없이 연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사태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방법론은 물론이고 자료해석에 요구되는 분석적, 종합적, 해석학적 접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처용설화는 동해용왕의 조화, 망해사(新房寺),⁴⁶⁾ 처용부인과 역신의 간통 사건,

655쪽 참조

46) 신방사(新房寺)는 현강왕이 망해사를 지어준 실질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숨은 코드이다. 그것은 『삼국사기』(제11권 중 진성왕)에서 그가 동쪽 지방을 순행할 때 미

벽사진경과 문첩신앙, 산신과 지신의 출현, 탐락자심(耽樂滋甚)⁴⁷⁾과 국종망(國終亡)이라는 주제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강왕 대에서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신라 왕국의 몰락 과정을 유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강왕은 동해용왕, 남악신, 북악신, 지신 등 신라의 호국대신(山海精靈: 『삼국사기』)들로부터 국가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지만, 월성루에 올라 서라벌의 태평성대를 언급하는 등 탐락에 빠짐으로써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전체 요지이다.⁴⁸⁾

따라서 처용사건을 단순히 무속적인 벽사진경이나 서역인설만으로 해석한다면 텍스트 내재적 의미연관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일연의 편집 의도 역시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 『삼국유사』의 기이(紀異)편이 고조선에서 후삼국까지의 건국과 왕권의 변화 등 ‘특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처용왕 망해사조’가 기이편에 수록된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⁴⁹⁾ 더구나 처용 무당설을 겨냥하는 민속학적 해석은 고려 처용가의 관점에서 신라시대에 발생한 처용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처용이 본 통간 장면을

인을 유인하여 얻은 마복자 사건과 결부된다(김부식, 『삼국사기』, 이병도 역, 을유문화사 1997, 298쪽).

- 47) 이민수는 이를 “술과 여색(女色)을 즐김”이라고 번역하였다(『삼국유사』, 紀異 第二處容郎 望海寺,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98, 174쪽 이하). 이는 신라 국민들이 환락과 주색에 물들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48) 조수학은 그의 논문 「‘처용왕 망해사’의 조짐성」(1994)에서 처용 텍스트는 “우리 국어국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문장 전체를 통일성 있게 연구한 논문은 별로 없고, 대개 이 글의 전반부를 잘라서 처용가와 그 배경설화에만 한정적인 연구를 해 왔다. 그 결과 원문(原文)의 취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양각색의 상상으로 인하여 맹인탐상(盲人探象)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하였다(『처용연구전집』 III, 역락 2005. 690쪽).
- 49) 일연님의 저술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로는 김영태, 「三國遺事に 보이는 一然의 역사인식에 대하여」(『역사학보』 5, 1974); 김영태, 「三國遺事の 체제와 그 성격」(『동국대논문집』 13, 1974); 김상현, 「三國遺事に 나타난 一然의 불교사관」(『한국사연구』 20, 1978); 김열규, 「三國遺事の 신화론적인 문제점」(『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983); 이기백, 「三國遺事 紀異篇의 고찰」(『신라문화』 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이기백, 「三國遺事 王曆篇의 검토」(『역사학보』 107, 1985); 김상현,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동양학』 15, 1985); 박승길, 「三國遺事に 나타나는 카리스마의 이해와 一然의 역사인식」(『한국전통문화연구』, 1985); 이도홍, 「三國遺事の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한국학논총』 26, 1995);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이강래, 「三國遺事の 사서적 성격」(『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등이 있다.

신라 당대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 골품제를 비롯한 신라왕실의 성 풍속이 그 본래적인 의미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탐략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적 파국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처용부인과 역신의 통간 사실은 무속적 상징 서술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탈신화화 된 것이다.

동시에 이용범과 정수일이 주도하는 처용 아랍인설은 중세 아랍문헌들을 통하여 신라시대에 서역인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증하였지만, 처용이 서역인 또는 아랍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수일이 제시한 논거는 무슬림이 중국을 경유하여 신라에 도착하였으며, 신라에서 잠시 머물거나 정착하였다는 사실뿐이다.⁵⁰⁾ 신라시대에 어떤 문물이 유입되었다고 해서 그 문화적 주체가 처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신라시대에 아랍인 이외에 로마문명과 기독교까지 전승되었다는 전거가 나온 이상,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랍인, 로마인, 심지어 기독교인까지도 처용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신라에는 4세기부터 서역의 문물이 유입되었으므로, 9세기 후반의 헌강왕이 처용 일행이 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⁵¹⁾ 따라서 아랍인 문물 교류설은 신라시대에 서역의 문물이 유입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처용이 아랍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처용 무당설과 처용 아랍인설은 처용설화가 발생한 역사적 정황이나 사건을 성공적으로 구성하거나 기술하지 못하였다. 처용설화에 묘사된 헌강왕과 동해용왕 사이의 긴장관계, 망해사의 별칭이 신방사(新房寺)라는 사실, 처용이 부인과 역신의 간통 장면을 보고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애적인 사건이 벽사진경과 문첩신앙으로 발전되는 과정, 산신과 지신이 헌강왕에게 출현한 사실, 그리고 탐략자심(耽樂滋甚)이 신라왕국의 멸망 원인(國終亡)이라는 사실이 해석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해석학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딴 섬들이다. 이를 의미있게 해석하려면 무당설 및 아랍인설이 취한 해석학적 지평을 전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복적 태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처용사건을 후대적 관점, 즉 처용가가 무가로 정형화된 고려시대의 무속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였던 신라 후대 혹은 그 이전의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둘째로 처용사건을 「처용랑 망해사」조의 한 부분으로 국한하지 않고

50) 정수일, 「아랍-무슬림들의 신라내왕과 처용」, 『처용연구전집』 IV, 671쪽 이하.

51) 김기홍, 「신라 처용설화의 역사적 진실」(2001), 『처용연구전집』 IV, 2005, 755쪽.

텍스트의 전체 연관성 속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국문학, 민속학, 문명교류학에와 같이 처용설화 부분만을 고립시켜서 연구할 경우에 설화 형성의 역사적 맥락에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설화의 의미함축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기백 등의 연구에 의하면 처용설화를 포함한 몇 가지 기사들은 현강왕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처용설화는 현강왕에 관한 다른 기사들과 더불어 전체 맥락에서 독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처용설화의 전복적 해석학은 처용가에 나타난 성애적 묘사와 그에 대한 처용의 태도를 신라 왕실의 골품제에서 파생된 근친혼(近親婚), 색공(色供), 어색(漁色), 삼서제(三嬖制) 등 다양한 형태의 성 풍속에 근거하여 해석할 뿐만 아니라, 처용사건이 국가적 차원에서 벽사진경으로 전개되는 카리스마 형성 과정과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당대의 정치변동 및 권력구조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할 것이다. 전복적 해석학에 의한 처용설화의 새로운 해석 시도는 ‘처용설화의 철학적 연구 (2)’에서 다룰 것이다.

(울산대)

(접수일 2008. 10. 14, 심사일 2008. 10. 27~11. 10, 게재확정일 2008. 11. 12)

[ABSTRACT]

Der hermeneutische Fehler in der Cheoyong-Schaman-Lehre
und der Cheoyong-Araber-Lehre
Eine philosophische Untersuchung der Cheoyong-Mythologie (1)

Jin Kim

Diese Arbeit behandelt die kritische Beurteilung zur Interpretation des Cheoyong-Mythos in der Bereichen der Koreanischen Literatur-, Volkswissenschaft und Koreanischen Geschichtswissenschaft. Die Hauptströmungen in der Cheoyong-Studien sind die Cheoyong-Schaman-Lehre und die Cheoyong-Araber-Lehre. Diese beiden Perspektiven aber sehen nicht den gesamten Sinnkontext und die text-immanente Sinnbedeutung der Cheoyong-Mythologie. In der Cheoyong-Schaman-Lehre sieht man insbesondere einen methodischen Fehler, damit man das in Silla-Zeit vorkommende Ereignis durch den Perspektive der Goryeo-Zeit, d.h. durch das Prinzip des schamanischen Exorzismus interpretiert. Deshalb wird diese Lehre von der damaligen historischen Situation abgesehen. Die Cheoyong-Araber-Lehre erklärt nur den wirtschaftlichen Handel zwischen Arabien und Silla, aber damit kann Cheoyong als Araber tatsächlich nicht bezeichnet werden. Deshalb muss ein neues methodischen Perspektiv gesucht werden, mit dem die durch die beiden Lehren nicht erklärten mythischen Stoffe sinnvoll interpretiert werden kann. Durch die subversive Hermeneutik kann die Cheoyong-Mythologie ihre historische Kontextsituation und ihre text-immanente Sinnbedeutung erhalten.

Key words: Araber, Cheoyong, Philosophie der Mythologie, Literarische Philosophie, Schaman, subversive Hermeneutik